

안젤코 막강 파워 삼성 4연승 질주

나흘로 34득점 맹활약

라이벌 현대 3-1 제압

프로배구 삼성
화재가 라이벌 현
대캐피탈을 완파
하고 파죽의 4연승으로 강팀의 면모를 완전히 되찾았다.

삼성화재는 21일 을 시즌 첫 만원 관중이 들어온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현대캐피탈과 2라운드 맞대결에서 '특급 외국인 선수' 안젤코(34득점)의 활약을 앞세워 삼성스코어 3-1(26-24 25-23 17-25 25-17)로 완승을 거두고 1라운드 패배(1-3)의 수모를 완벽하게 되갚아줬다.

이로써 1라운드에서 '프로팀 빅3'인 현대, 대한항공, LIG손해보험에 모두 패했던 삼성

화재는 2라운드에서 세 팀을 차례로 물리치며 지난 시즌 챔피언의 모습을 완전히 회복했다.

라이벌전답게 1세트는 치열한 접전이었다. 그러나 안젤코라는 결출한 '해결사'를 보유한 삼성의 뒷심이였다. 삼성은 1세트에서 드스까지 가는 접전 끝에 26-24로 따내며 기선을 제압했다. 안젤코는 23-23 동점에서 후위공격을 성공시키며 24-23을 만드는 등 양팀 풀틀에 최다인 8득점을 올렸다. 공격이 분산되면서 1차전 때 현대가 압도적 우위(18-3)를 보였던 블로킹 득점을 현대와 삼성 각각 1개씩에 불과했다.

2세트는 '안젤코의 원맨쇼'였다. 첫 테크니컬 작전타이밍이 있으면 팀이 기록한 8점 중 6점을 헛자서 쓰러뜨렸다. 안젤코가 현대 블로킹 3점을 달고 뛴 뒤 자신감 있는 공격으로 상대 코트에 공을 내리꽂는 모습은 압권이었다. /연합뉴스



46세 노장, 챔프의 꿈 좌절 21일(한국시간) 스위스 취리히 할렌스탠디온에서 열린 WBA 헤비급 타이틀 방어전에 서 러시아의 니콜라이 발루에프(오른쪽)가 에반더 홀리필드와 경기를 펼치고 있다. 이날 발루에프는 전 헤비급 세계 챔피언 홀리필드를 누르고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다. /연합뉴스

故 최요삼 선수 1주기

김택민 슈퍼페더급 챔프

지난해 12월 경기 도중 쓰러져 숨졌던 고
최요삼 선수가 사고 1주를 맞았다.

최요삼 유족은 고인의 음력 기일(11월 24일)을 맞아 21일 유해가 안치된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화곡리 유토파아주묘관에서 주
모식을 가졌다. 최요삼은 작년 12월 25일 세계복싱기구(WBO) 플라이급 인터콘티넨
탈 타이틀 1차 방어전에서 판정승을 거둔 뒤 쓰러져 뇌사 판정을 거쳐 지난 1월 3일 35세
로 짧은 삶을 마감했다. /연합뉴스

복싱 유망주 김택민(23)이 슈퍼페더급 챔
피언에 올랐다.

김택민은 지난 20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한국 슈퍼페더급 타
이를 결정전에서 남성우(32)를 4라운드 2분
20초만에 KO로 꺾고 챔피언 벨트를 따냈
다.

이로써 김택민은 8승(5KO) 2패를 기록했
고 남성우는 4승(2KO) 2패가 됐다. /연합뉴스

21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벌어진 2008-2009 프로배구 V-리그 삼성화재-현대캐피탈 경기에서 삼성화재 안젤코가 현대캐피탈 앤더슨, 하경민, 박철우의 블로킹 위로 강스파이크를 날리고 있다. 삼성이 3-1로 승리했다. /연합뉴스

스포츠TV

22일(월)
▲08/09 NFL<피츠버그 : 테네시>(02 :
55-SBS 스포츠)
▲08/09 프랑스리그1 측구<AS모나코 :
쾰른>(05 : 00-MBC ESPN)

보르도>(04 : 50-KBS N SPORTS)
▲2008 쉐브론 월드 챌린지 FR(05 : 00-SBS
골프-SBS 스포츠)
▲08/09 여자프로농구<KB국민은행 : 신
한은행>(18 : 50-SBS 스포츠)
23일(화)
▲08/09 잉글리시프리미어리그<에버
튼 : 웨스트햄>(05 : 00-MBC ESPN)

매매·교환·개발·건축부동산을 구하여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습니다.

공시기·감정기 70%이하

(총장로5가 시거리 2층, 금남로 5가와 엔터시니마 증근)

매매·교환·개발·건축부동산을 구하여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습니다.

금당부동산

(062)223-7400 훤 016-632-5659

나원동 1동 101평 14억3천 500만원

나원동 1동 101평 14억3천 500만원